

숨 쉬듯 연주...작은 하모니카로 강한 음식 관객 압도

단독 리사이틀 마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전남 광양 고향... 광주서 작곡 공부 각종 대회 수상, 세계적 아티스트 주목 클래식·가요·자작곡 '흔적' 등 연주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등에 참여

"봄바람 휘날리며- 흠날리는 벚꽃잎이....." 매년 봄마다 거리를 가득 채우는 노래가 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바로 그것, 2012년 발표 곡이지만 10년 넘게 음원 사이트에 '차트인'하면서 전세대의 인기를 끌고 있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노래에서는 1절이 끝날 때 보컬 장범준이 "하모니카 솔로"를 외친다. 그러면서 울려 퍼지는 풍부한 하모니카 멜로디는 클래식스를 장식하며 듣는 재미를 더한다.

'꽃송이가'를 연주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지난 8일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선보여 화제다. 이에 앞서 기자는 공연 당일 박 씨를 리허설 무대와 대기실에서 만났다. 광주에도 북극한 파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 '꽃송이가' 흠날리는 따스한 봄이 어서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중·고등학교를 전남 광양에서 다녔고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에는 광주에서 작곡을 공부했어요. 아버지와 친구 등 음악적 동료들이 대부분 광주에 계셔서, 이곳에서 공연할 때마다 "음악적 고향"을 되찾아 온 기분이 들어요"

박 씨는 광주에서 공연을 펼치는 소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릴 적부터 서울, 광주·전남 등지를 오가며 하모니카 연주계를 '개척'했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온 그에게서 쉽지 않았을 하모니시스트로서의 여정을 가늠할 수 있었다.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한 박 씨는 그동안 아태 하모니카 대회 1위(3관왕·2008), 하모니카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독일 세계 하모니카대회에서 자작곡으로 트레몰로 독주 부문 정상(2009)에 올랐다. 이외에도 최초의 하모니카 독일 브랜드 '호너'가 선정한 글로벌 아티스트(2023)에 밥 딜런 등과 함께 이름을 나란히하는 등 주목받아 온 아티스트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하모니카만의 매력에 궁금해졌다. 박 씨는 다른 관악기처럼 '센 호흡'이 필요하지



박종성 하모니시스트와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협연하고 있는 모습.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않고, 그냥 숨 쉬듯 일상적인 호흡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하모니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웃어 보였다. 악기 자체의 휴대성이 좋아 가슴팍에 품고 다니다가 언제든 꺼내 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품에서 꺼내보여준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12음계를 모두 담아낼 수 있어 '알짜'다.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일반적인 트레몰로 하모니카 등에 비해 음계 표현이 다양하다. 그냥 불면 피아노의 흰 건반의 소리가 나고, 축면의 버튼을 누르면 바람을 불자 점점 건반의 반응계가 표현됐으며, 작은 구조에도 다양한 음을 표현하기 충분해 보였다.

특히 박 씨는 공연계에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로 정평이 나, 이날 공연에서도 화려한 멜로디를 들려줬다.

버스커버스커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당시 다른 드라마 OST 작업으로 녹음실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버스커버스커 음악감독이 녹음실을 찾아, 연주를 보고 협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무대에 올라 작은 악기로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박 씨의 모습을 보니, 단소정환(短小精悍)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작달막한 하모니카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정면하고 강한 음식으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공연에서는 자작곡 '흔적'도 들을 수 있었다. 수년 전 30대가 된 뒤 삶의 다양한 흔적들을 돌이켜보며 이를 악곡에 녹인 작품이다.

"어떤 흔적은 감추고 싶고, 어떤 흔적은 따뜻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어느 기억을 떠올리며 감상하는 지에 따라 같은 멜로디도 밝거나 어둡게 느껴질 겁니다"

이외에도 공연에서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페데르센의 '여인의 그림'을 비롯해 스피카코프스키의 '하모니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등 클래식 레퍼토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박 씨는 변진섭, 이문세 곡과 민요 '새야새야' 등을 연주하며 클래식·대중가요 하모니시스트로서의 면모를 모두 보여줬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장면.

<광주일보 DB>

'20년 달거리 공연 마칩니다'

'김원중의 달거리' 마지막 공연, 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003년 첫선을 보인 뒤, '평화'와 '화합'을 기치로 내걸며 총 135회 상설 공연을 열어 온 '김원중의 달거리'가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지며 '20년 달거리 공연을 마칩니다'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노정을 매듭짓는다.

'김원중의 달거리'는 2003년 '북한어린이 사랑 모으기' 공연을 필두로 20년간 진행돼 왔다. 2004년 공연 '북한어린이방공장사업본부'를 열어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작년까지 모인 시민 기부 성금은 총 1억2832여만 원에 이를 정도.

김원중은 1984년 '바위섬'을 발표하며 데뷔, '5·18 광주 30', '4천만의 대합창' 등 대표 공연을 선보여 온 뮤지션이다. 2013년에는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맡았으며, 2014년

오월창작가요제 총감독을 역임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공연에는 재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리디안팩토리, 샌드아티스트 주홍, 밴드 우물안개구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밴드 '프롤로그', 싱어송라이터 '박성안'과 국악인 '김산옥' 등도 무대에 오른다. 오랫동안 달거리를 지켜온 '김원중과 느티나무 밴드'도 함께한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바다프로젝트 임용'과 함께하는 '영화 속 노래 찾기' 공연이 바로 그것. 이외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땀 만드는 갤러리', 철학자 박구용(전남대)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 시간도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동심"

이지담 시인 '고민에 빠진 개' 펴내

시를 쓰는 것은, 특히 동시를 쓰는 것은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읽어내는 일이다. 도화지 같은 때 묻지 않는 하얀 마음이 바로 동심이기에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동심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에게 동심을 품게 해주는 어린이들에게가 닿아 보고 싶어 동시를 쓴다."

이지담 시인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동시를 쓴다는 것은 동심을 떠올리고 동심을 품게 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세상이 점점 더 거박해지고 정이 메말라간다고들 한다. 경쟁 위주의 삶을 살다보니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둔감해질 때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동심은 메마른 마음을 다독여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해준다.

이지담 시인이 펴낸 '고민에 빠진 개' (초록 달팽이·사진)는 읽으면 위안이 되는 따뜻한 동시들이 수록돼 있다.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느끼게 된다. 시 속의 화자들은 나지막이 속삭인다. 우리 사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것의 단초는 동심이라고 말한다.

"거북이와 토끼가/ 다리 바꿔 달리기를 하였다// 거북이는 긴 다리를 가지게 되었다// 스프링 달린 것처럼 높이 뛸 수도 있다/ 이전보다/ 낮잠을 자는 척/ 기다려 준 토끼를// 토끼는 물갈퀴 다리를 가지게 되었다/ 한 번



도 쉬 없이 걷는다/ 이전보다/ 이 게임을 몰리치 않고/ 함께 한 거북이를/ 위 시 '바꿔 봐!'

는 내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마음의 자세를

노래한다. 서로 다리를 바꿔 달리기를 하는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는 이전에 알고 있던 동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작품이다. 토끼는 거북이가 돼 보고, 거북이는 토끼가 돼 보는 입장 바꿔보기를 통해 양보와 역지사지의 아름다운 미덕을 떠올리게 한다. 아마도 시인의 생각하는 동심은 그런 것일 듯하다.

시인은 "내게 여러 종류의 슬픔이 다가왔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동심이 그 슬픔을 이겨내게 했다"며 "동심이 있는 지구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한다.

한편 이지담 시인은 '서정시학' 여류호에 시가 당선됐으며 2014년 '대교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아동문학상 동시 부문에 최고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시집 '고전적인 저녁', '너에게 잠을 부여하다', 동시집 '낙타가죽'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도시 조성, 남아 있는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의 현안을 지역 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 주제는 '문화도시 조성, 남아 있는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며 개최 일시와 장소는 1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다.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도시환경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구 박사가 '조성사업의 추진경과와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정 박사는 조성 사업 관련 예산 투입 현황과 사

업의 주요성과를 비롯해 종합계획, 연차별 실시계획에 및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신의 경희대 교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문화전당의 인지도 외에도 문화도시로서의 광주의 강점과 약점, 일몰 후 문화자산의 운영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회는 김기곤 광주연구원 연구본부장, 강신겸 전남대 교수,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주 카톨릭대 교수,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이 참여한다.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지원포럼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조성 사업의 성과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에 대한 현재의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 환기와 향후 남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장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